

코오롱티슈진, TG-C로 글로벌 상업화 시동 건다

- ▷ 코오롱티슈진, 세계 최대규모 헬스케어 행사인 2026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참가
- ▷ 빅파마 포함 글로벌 제약사들과의 파트너링 논의 및 자체 상업화 투트랙 준비 가속화
- ▷ 오는 7월, 임상 3상 결과(Top Line Data) 발표 예정... '혁신 신약' 기대

코오롱티슈진이 현지시간 1월 12일부터 15일까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'2026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(J.P. Morgan Healthcare Conference)'에 참가했다.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는 전 세계 제약·바이오 기업과 업계 전문가, 투자사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세계 최대 규모의 헬스케어 전문 행사다.

코오롱티슈진은 지난해 바이오 USA와 바이오 유럽(Europe)에 이어 12월에도 글로벌 제약사 및 상업화 밴더들과 개별 미팅을 진행하며 상업화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. 이번 행사에서도 TG-C의 영업과 마케팅, 약가 및 유통 전략 등을 수립하기 위해 릴레이 미팅을 진행하며 협력 관계를 다졌다.

이와 함께 글로벌 제약사, CMO(위탁생산) 및 투자사 등을 포함한 30여 개 잠재 파트너사와 만나 상업화 성공과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한 폭넓은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. 아울러 바이오 업계 주요 오피니언 리더(KOL: Key Opinion Leader)들과도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가며 TG-C 이후 추가 파이프라인과 관련된 '포스트 TG-C' 전략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.

행사 현장을 직접 찾은 코오롱티슈진 전승호 대표는 "2026년은 그 동안 공들여온 TG-C의 가치를 전 세계에 증명하고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는 해가 될 것"이라고 포부를 밝혔다. 전 대표는 "미국 임상 3상 결과 발표가 임박함에 따라 다양한 국가의 제약사들이 높은 관심을 보이며 미팅을 요청해오고 있다"며, "지금까지의 임상에서 확인된 TG-C의 기술력과 사업성을 바탕으로 남은 절차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전 세계 골관절염 환자들에게 혁신적인 치료 기회를 제공할 것"이라고 말했다.

코오롱티슈진은 오는 3월경 미국 임상 3상 환자 추적관찰을 종료하고 데이터 분석에 돌입해 올해 7월 중 주요 평가지표 결과(Top Line Data)를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.

한편, 무릎 골관절염 시장은 수술 외에는 근본적인 치료법이 없어 환자들이 진통제나 히알루론산 주사 등 일시적 보존 치료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. 다수의 글로벌 제약사가 치료제 개발에 나섰으나 아직 FDA 승인을 받은 사례는 없다. 코오롱티슈진의 TG-C는 통증 완화와 기능 개선은 물론, 구조적 개선 효과까지 입증해 세계 최초의 근본적 치료제(DMOAD) 승인을 목표로 개발하고 있으며 2024년 미국 내 대규모 임상 3상 투약절차를 마치고 2027년 1분기 美 FDA 최종 품목허가 신청을 앞두고 있다.